

연구 결과 해제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광주 출신 또는 광주를 거주지로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발굴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조사·정리함으로써 향후 광주광역시 차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기획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시작부터 난항에 부딪혔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공식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님이 대한민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이후, 한국 정부는 피해자를 조사·등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3년 6월 11일 제정된 법률 제4565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은 피해자의 피해 신고, 정부의 심의·등록,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시작된 중요한 법령이다.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¹⁾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등본 등 거주지 확인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하고(제2조), 담당 부서의 장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의 명단을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해 두어야 한다(제4조).²⁾

아래 <그림 1>은 시행령에 제시된 「대상자 등록대장」 양식이다. 이 자료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의 등록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그분들의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찾아서 서류에 기재된 본적(本籍)을 확인하면 출신지도 비교적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1993.7.6.) 별지 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 상 자 등 록 대 장

월 일	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 청 기 관	비 고

31314-07311민
93. 6. 18 승인

297mm×21cm
인쇄용지(2급)60g/㎡

1) 「1993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13938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법령/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13938.19930726\)](https://www.law.go.kr/법령/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시행령/(13938.19930726))) 최종 검색일: 20241028.

2) 1993년 법률 제정 당시 담당 부서는 보건사회부였으나 2001년 법률 개정으로 여성부로 변경되었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위원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조사·등록하였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2004)는 2005년 2월부터 6월까지 군인,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등에 관한 피해 신고를 1차로 접수했고, 다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차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어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2008)에서도 2008년 4월부터 6월까지 3차로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두 위원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로 통합되어서 2016년까지 활동하였다. 이때 '위안부' 피해는 336건이 신고되었으나 대부분 피해 판정 불능으로 결정되고, 23명만 피해자로 인정되었다.³⁾

위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가족부 소관 피해자 등록 자료 및 각종 국가 위원회 조사 자료는 광주 출신 또는 광주를 거주지로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이다. 현재 해당 자료들은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어 본 연구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었다. 아래 <그림 2>, <그림 3>, <그림 4>는 국가기록원 소장 비공개 문서들 중 일부이다. 앞으로 광주여성가족재단 또는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국가기록원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입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림 2> 정신대 신고서 문서철(1991~1997)

■ 철기록물 상세정보

오류신고

철 제목	정신대신고서		
생산기관	여성부	관리번호	DA0446071
생산연도	1991년	종료연도	1997년
기록물철분류번호	1382000999999991991000001001		
기록물형태	일반문서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보존기간	영구		
서고정보	성남 나라기록관		

■ 기록물 건

기록물 건 385건

건제목

검색

건-열 번호	건 제목
261-1	정신대신고서-정OO
262-1	색인-광주직할시
263-1	정신대신고서-완OO
264-1	정신대신고서-취OO
265-1	정신대신고서-양OO
266-1	정신대신고서-정OO

3)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182쪽.

<그림 3> 일군위안부생활안정사업 관리실태(광주광역시) 문서건(1997)

□ 건기록물 상세정보

오류신고

건 제목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사업 관리실태-광주광역시		
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여성복지과	관리번호	DA0446072
생산연도	1997년	문서유형	일반문서
공개구분	비공개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형태	일반기록물		
기록물건등록번호	1997146004200001500	생산등록일자	1997-05-01
페이지정보	211~317 / 107	서고정보	성남 나라기록관

<그림 4> '위안부' 피해신고 생존자 심의·결정통지서 송부 문서건(2006)

□ 건기록물 상세정보

오류신고

건 제목	'위안부' 피해신고 생존자 심의·결정통지서 송부		
생산기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조사2과	관리번호	EA0046180
생산연도	2006년	문서유형	일반문서
공개구분	비공개	보존기간	영구
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형태	일반기록물		
기록물건등록번호	0216550192006000576	생산등록일자	2006-09-07
서고정보	서고미배치		

□ 식별체계 부가정보

유형	실물	표현형태	시각
----	----	------	----

□ 기여자 정보

서비스권자	국가기록원
-------	-------

□ 첩 제목

제목	 광주광역시
----	---

일본군‘위안부’ 피해 신고서, 조사·등록 자료 등 1차 사료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가족부, 각종 국가 위원회 등 신뢰도 높은 기관에서 발행한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행본·보고서·자료집 류를 폭넓게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주요 단행본·보고서·자료집 목록이다. 기타 지자체와 민간인이 발행한 자료는 증언집을 중심으로 검토했는데, 검토 목록은 <표 2>와 같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발행 자료만 검토하였으나, 해외 발행 자료라도 국내에서 번역 출간된 경우에는 검토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표 1>, <표 2>의 간행물 자료, 그 밖의 인터넷 자료 등에서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표 1> 검토 목록① 주요 기관 발행 단행본·보고서·자료집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정 의 기 역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	1993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증언집 1	한울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5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0년 후의 증언	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1997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한국정신대연구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99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1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풀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한국정신대연구소	2001	해외 거주 일본군‘위안부’ 실태 조사집	
	한국정신대연구소	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2004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	여성과인권
여 성 가 족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여성부	2001	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연구소,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2	2002년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2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 일본군'위안부' 증언자료집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2	하루가 천금이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포토다큐멘터리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3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목록집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부 권익기획과	2004	일본군'위안부' 신문기사 자료집	(연구보고서)
한국정신대연구소, 여성가족부 권익기획과	2006	중국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3	「2013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사례관리자 워크숍	(자료집)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체계적 분류집	(연구보고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 일본국회회의록(1948~2002)의 '위안부' 관련 논의 해제·번역(상)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국대 인간과미래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영어권 자료팀-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7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발굴·정리·해제사업: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조사·정리·해제-	(연구보고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연구보고서)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201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보고서 자료집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실태와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1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Ⅰ)	(연구보고서)

		201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Ⅱ)	(연구보고서)
한 국 여 성 인 권 진 흥 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19	일본군'위안부' 관련 번역자 료집 I 정책편	(주)디자인여 백플러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19	일본군'위안부' 관련 번역자 료집 II 실태편	(주)디자인여 백플러스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19	일본군'위안부' 관련 명부 분 석: 덧칠된 기록에서 찾은 이 름들	역사공간
국 가 위 원 회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2009	강제동원 명부해제집1	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 상규명위원회	2009	인도네시아 동원 여성명부에 관한 진상조사	(진상조사보 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09	전시하 일본지역의 '기업위안 소'와 조선인 '기업위안부'에 대한 진상조사	(진상조사보 고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3	강제동원 명부해제집2	선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3	들리나요? 열두소녀의 이야 기	태 성 커 뮤 니 케이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 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 록, 요약본	(결과보고서)
동 북 아 역 사 재 단		2009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상)	
		2009	한일 역사현안 관련 일본군 '위안부' 연구논저 목록(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I]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2018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 일본 자료편(상)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2018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I] 일본 자료편(하)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2018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II] 연합군 자료편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2018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집 [IV] 중국 지역·타이완 지역· 타이 지역 자료편	

	도시환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 피해자 중심 해결	역사공간
	박정애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 관점과 실태	역사공간
		2020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Ⅰ]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번역·해제 편)/ (자료편)	동국문화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1)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선인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2)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선인
		2020	전쟁범죄·일본군'위안부' 피해실태 자료집	역사공간
		2021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Ⅱ]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역사공간
		2021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Ⅲ] 전시체제기 유언비어 통제 관계	역사공간
		2022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실지 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동국문화
		2023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Ⅴ] 일제 성관리 정책하의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	동국문화
정진성 연구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8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	푸른역사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8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2	푸른역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정진성 연구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일본군'위안부' 관계 연합군 자료 Ⅰ	서울문화인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정진성 연구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9	일본군'위안부' 관계 연합군 자료 II	서울문화인쇄
----------------------------------	------	-----------------------	--------

<표 2> 검토 목록② 기타 지자체·민간인 발행 증언집

저자	연도	서명	출판사
이토 다카시	1994	흰 옷고름 입에 물고-남북 종군위안부 15인의 한맺힌 증언	눈빛
이토 다카시	1997	종군위안부-남북 종군위안부 27인의 증언	눈빛
강용권	2000	강제징병자와 종군위안부의 증언	해와달
기독교살림여성회	2004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봉천출판사
안세홍	2013	겹겹: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서해문집
이토 다카시	2017	기억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알마출판사
안세홍	2020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 아시아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여성 21인의 목소리	글항아리
인천광역시	2020	빼앗긴 나라, 잊혀진 존재: 인천지역 대일항쟁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유족 구술 기록집	디자인센터 산

첫째,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통계이다. 산발적이거나 피해자 등록·거주·지역에 관한 통계를 모았다. 이 유형의 통계는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정보를 기초로 한 자료이므로,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 피해자의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다. 등록 당시 및 등록 이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거주지는 대개 출신 지역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생존자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이미 사망하신 분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이 통계는 기본적으로 1990년대 이후의 일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접근하고자 할 때는 가장 활용 가치가 낮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애 자료이다. 각종 자료에서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었거나 광주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생애 자료를 모두 수록했다. 피해자의 증언을 주로 하되, 증언 이후의 생애까지 종합할 수 있도록 사망 이후의 부고, 신문기사 등을 추가하였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해당 지역 출신 또는 1990년대 등록 이후 해당 지역에 거주한 일본군'위안부'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 경우 정작 피해자가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된 시기 지역사회의 모습은 누락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광주는 전남의 농촌 출신이 물려든 대도시였으므로, 거주 경험이 출신만큼이나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광주에서 동원되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한 것은 개인의 생애 자료 속에서 지역의 역사적 맥락을 찾아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셋째,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동원 자료이다. 중일전쟁(1937) 이후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을 둘러싼 광주지역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그동안 동원 자료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광주는 전남의 중심 도시로서 일본군'위안부' 피

해자의 동원 경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광주 출신의 위안소 운영업자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광주지역 사회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지역의 일로써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피해자를 기리는 행사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다음 2장에서는 각 항목 및 주요 수록 자료에 대하여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요 자료 해제

1)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통계

II장에 수록된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통계는 모두 1993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에 신고·등록된 피해자 자료이다. 1절 피해자 등록 및 거주 현황에서는 등록·거주의 일반 통계뿐 아니라, 통계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함께 수록하여 피해자 동원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2절 피해자 지원 현황은 대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수집된 연속성 있는 보도자료이고, 피해자 생활·건강 지원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절로 분리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1993년 이후 연도별 피해자 등록·거주 현황, 연령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통계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 삭제한 내역은 없다.

통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광주광역시 관련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광주지역 출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가 여성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물인 『일본군'위안부'증언·통계 자료집』(2001)은 증언집과 신고서(1992-1994년 집중적으로) 작성 당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1년 12월 현재 한국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된 203명 중 자료가 불충분한 11명을 제외하고 19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의 출생지는 서울 이외에는 도 단위로 집계했는데, 전라남도 출신은 17명(8.9%)이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연구(I)』(2015)에서는 238명이 피해자로 등록된 2014년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라남도 출신은 23명인데, 그중 광주 출신이 6명이고 공장에 다니다 동원된 경우가 많이 보였다고 한다. III장의 생애 자료와 비교해 보면, E○○ 또는 최복애(가명) 님(2006년 최초 조사)이 명확히 광주 출신이면서 광주에서 제사공장에 다니다 '위안부'로 동원된 사례에 해당한다.

나머지 5명의 광주 출신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은 광주 '출신'이 광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인지 광주에서 자랐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다만 장성 출신으로 알려진 진화순 님도 광주 제사공장에 다니다 동원되었는데, 증언 가운데 고향을 광주로 언급한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정진성의 『일본군성노예제』(2004, 서울대학교출판부)는 1993년 12월 보건복지부에 신고된 피해자 17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출생지 통계가 없는 대신 연행된 곳 통계에서 광주 1명을 집계했다. 진화순 님은 1993년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했으므로, 이 자료에서 광주에서 연행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진화순 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계 자료에서 광주지역 출신 일본군'위안부'를 더 이상 추적하기는 어렵다. 광주는 일제시

기 전라남도에 속해 있었고, 1986년 광주직할시가 승격·분리된 이후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을 편입하는 등 행정구역의 변화도 있었다. 따라서 광주지역 출신 피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공간적 범위가 일제시기의 광주인지 아니면 현재의 광주광역시인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하고, 광주·전남 출신 피해자의 신고서와 호적 자료를 비교 대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광주지역 출신 일본군‘위안부’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

(2) 광주광역시 등록·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등록해 두는 한편, 등록 대상자의 전입·전출, 사망 등 변동 사항을 확인하였다. 생활 및 의료 지원의 대상자 및 거주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다. 등록·거주 지역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1990년대 이후의 주소라서 현재의 광주광역시와 공간 범위가 일치하고, 정부가 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자료이므로 비교적 명확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동원 당시의 거주지와 일치하지는 않으며, 생존자의 현주소만 확인할 수 있어서 전입·전출, 사망 등에 따른 변동을 알 수 없는 것은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거주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거주 현황

	200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7년
생존자 수	2명	1명	1명	1명	1명	1명

Ⅲ장의 생애 자료를 볼 때, 2001년 현재 또는 그 이전 광주광역시에 등록·거주한 것이 분명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윤애자(1931~2003), 진화순(1926~2010), 이순덕(1918~2017) 님이다. 윤애자 님은 동구 지산동에서 의자매 가족과 생활하다가 2003년 광주에서 사망하셨다. 진화순 님은 전북 정읍에서 생활했지만 2010년 광주 첨단병원에서 사망하셨고, 당시 신문에서는 이로써 “광주에는 생존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고 보도하였다. 이순덕 님은 1990년대 관부재판 당시 광주에 거주했으나, 2003년 이후 서울로 거처를 옮겨 2017년 사망하셨다고 한다. 그렇다면 <표 3>의 2001년 당시 생존자 2명은 윤애자, 이순덕 님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후 진화순 님이 광주로 전입해 왔다가 2010년에 사망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아시아경제 <위안부 보고서 55>는 2014년 238명의 생존자 가운데 광주광역시에는 곽○○ 님(북구) 1명, 전라남도에는 공○○ 님(해남), 황○○ 님(화순) 2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곽○○ 님은 중국에 거주하다가 2004년 한국 국적을 회복해 귀국한 담양 출신 곽예남 님이다. 2010년 진화순 님의 사망으로 광주에 생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한 신문 기사를 감안하면, 곽예남 님은 2010년 이후 어느 시점에 광주로 전입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곽예남 님이 2017년 담양으로 전출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는 다시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생존자 곽예남 님은 2019년 사망했다.⁴⁾

4) 「광주시, 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 취소... “행사 중복·참여율 저조”」, 『남도일보』 2023년 8월 2일.

2)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애 자료

Ⅲ장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개인별로 수록하였다.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는 광주 출신이거나 광주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었거나 광주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관련 자료로는 피해자의 증언 중심으로 수록하되, 증언 채록자의 후기까지 포함해 부가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⁵⁾ 그 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애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 기사, 기타 자료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1명당 증언, 신문 기사 등 여러 종류의 생애 자료가 수록되었으며, 피해자 1명에 여러 개의 증언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여러 종류의 자료는 인용한 도서가 간행된 순서대로 배열했으나, 이순덕·하순녀 님의 관부재판 1심 인용 자료는 재판 시기를 고려하여 중간에 배치하였다. 또한 가급적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계통의 자료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료들을 나열하지 않고, 하나의 출처 박스 안에 ①, ②와 같이 서로 다른 출처를 나누어 표기하였다. 이러한 자료들도 간행 순서에 따라 순번을 부여하였고, 가장 먼저 간행된 ①번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화하였다. 다만 나중에 간행된 자료라도 정본(定本)에 가깝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자료에 ①번을 부여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텍스트화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된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13명이다.⁶⁾ 그리고 피해자의 생애 자료인 만큼 Ⅲ장에는 성명, 출생 연월일, 출생 지역, 거주 지역,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되어 있다. 원칙대로라면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해야겠지만, 가명을 사용한 김태선, E○○ 또는 최복애 님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살아 계실 때 실명을 사용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였다. 피해 사실을 다룬 증언 및 관련 자료를 간행 도서나 온라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운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각종 시위에 적극 참여하신 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피해자 13명의 개인정보는 가급적 삭제하지 않고 인용 출처에 기록된 대로 모두 수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용한 자료가 1차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미 삭제된 상태인 점도 감안하였다. 다만 이미 간행된 자료라도 피해자 본인 외 제3자가 언급된 경우에는 그 성명을 일부 삭제하는 대신 []를 채워 넣었다.

<표 4>는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3명의 주요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출생 연도가 자료에 따라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증언 및 여성가족부 자료에 기재된 것을 우선하였다.

5) 오탈자도 문법이나 띄어쓰기 오류 등 명확한 것을 제외하면 가급적 원문을 그대로 텍스트화하였다.

6)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각종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8명을 파악했다고 한다. 광예남, 여복실, 박넙데기, 진화순, 신쌍심, 김복선, 황선순, 공정엽 님이다(「일본군'위안부' 기림일에 내걸린 '소녀상 건립 1주년」, 『광주드림』 2018년 8월 14일, <https://www.gi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9528>, 최종검색일: 2024년 10월 29일). <표 4>에는 광예남, 진화순 님만 포함되었다. 이국언 대표가 파악한 분들의 증언록도 대개 본 연구의 검토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광주와의 관계는 발견하지 못했다. 나머지 6명은 전남에 연고를 둔 것으로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검토하지 못한 자료에 광주 연고가 기재되었을 수도 있다.

<표 4>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나다 순)

성명	생몰년	출신지	동원 지역	광주와의 관계	비고
곽금녀	1923~2007	충남 천안	중국 무단장성	광주제사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1939)	북한 거주
곽예남	1925~2019	전남 담양	중국	2004년 국적회복 귀국, 2010년대 광주 거주	광주·전남 마지막 생존자
김태선 (가명)	1926~미상	전남 강진	동남아시아 버마 랑군	광주 여인숙 1박, 광주 역 기차 탑승(1944)	랑군 영국군 수용소 수용
박차순	1923~2017	미상 (외가, 전북 전주)	중국 후난성, 난징, 후베이성 한커우, 우창	광주에서 점원 생활을 하다가 경성 매춘업자에게 팔려감(1942년경)	중국 거주
윤애자	1931~2003	경남 진해	중국 한커우, 우창	1970년대부터 광주에서 고물 장사, 호적을 새로 만들. 의자매와 광주 동구 지원동 거주하다가 광주에서 사망	14살에 동원
이순덕	1918~2017	전북 익산	중국 상하이	광주 남성과 재혼하여 1990년대 광주 거주(서구 쌍촌동)	관부재판 참여. 차진현은 광주 출생이라고 기록
진화순	1926~2010	전남 장성	중국 항저우(추정)	광주제사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 귀국 후 친정이 있는 광주에 살면서 각종 장사를 함	'광주댁'이라고 불리는 등 광주 출신일 가능성 있음. 2010년 광주 마지막 생존자
최갑순	1919~2015	전남 구례	중국 동안성, 무단장성	광주에서 5박 하는 동안 매일 여성이 늘어남	
최선순 (가명 김봉이)	1927~2013	전북 고창	일본	'위안부' 생활 중 정신 이상이 되었으나 같은 위안소에 있던 김씨 언니의 도움으로 광주에서 건강 회복, 이후 광주에서 2~3년 간 거주	광주에서 '김봉이'로 생활

성명	생몰년	출신지	동원 지역	광주와의 관계	비고
최양순	1927~미상	전남 광산	중국 내몽골	광주에서 솜 타는 공장에 다니다가 군대로 가는 줄 알고 자원(17세)	일본 군인에게 강간. 만주개척단 조선인 남성과 집단 결혼
최일례	1916~미상	전남 영암	중국 만주	일본 군인에 강제연행되어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 한 달 체류, 여성들이 계속 추가됨(1932)	
하순녀	1920~2000	경남 진주	중국 상하이	출생 직후 가족이 전라도로 이주(목포, 영암). 가출해서 광주에서 남의집 살이하다가 취업사기로 동원됨(1937). 귀국 후 다시 광주로 나와 남의집 살이를 함	함께 동원된 8명 중 '광주 아이'. 귀국 전 중국인 집에서 함께 지낸 5명 중 '광주 여자'
E○○, 최복애 (가명)	1922~미상	전남 광주	남태평양(남양군도) 팔라우	광주 방직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1939 또는 1940), 남광주역에서 기차 타고 관려연락선을 통해 일본 경유	2005년 고향 광주의 구청을 찾아가 강제동원 노동자로 신고

<표 4>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광주 출신임이 분명한 사람은 E○○ 또는 최복애 님 1명이지만, 동원되기 이전에 이미 광주로 이주하여 살고 있던 사람이 5명 더 확인된다(곽금녀, 박차순, 진화순, 최양순, 하순녀 님). 이는 광주가 비교적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대도시여서, 인근의 농촌 출신 여성들도 종종 광주로 나오곤 하였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박차순 님은 점원으로 생활했고 하순녀 님은 남의집 식모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곽금녀, 진화순, E○○ 또는 최복애 님은 모두 광주 제사·방직 공장에서 일하다가 집단 동원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최양순 님도 솜 타는 공장에 다니다가 군대를 자원하였다고 하였다. 앞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통계 해제에서 언급한 자료에서도 광주 출신 6명 중 공장에 다니다 동원된 사례가 많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피해자 생애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광주지역은 인근 농촌지역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공장 등을 통해 동원되는 장소였다.

둘째, 광주지역은 인근 농촌지역에서 동원된 여성들이 모이는 중간 집결지였다. 광주가 전라남도 내륙의 교통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강진에서 동원된 김태선(가명) 님은 광주에서 1박을 한 후 광주역(호남선)에서 기차 화물칸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였고, 광주 방직공장에서 동원된 E○○ 또는 최복애 님은 남광주역(광려선)에서 기차를 타고 여수로 갔다가 다시 관려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였다. 동원 과정에 광주(또는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 여러 날 체류한 최

갑순, 최일례 님은 머무는 동안 여성이 계속 늘어났다고 증언했다. 일본군‘위안부’ 동원업자들은 광주·전남 인근에서 강제 동원한 여성을 광주에 모아 두었다가 한꺼번에 이동시킨 것이다.

셋째, 해방 이후 광주에 처음 거주하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고향에 기댔만한 연고자가 마땅치 않은 경우였다. 경남 진해 출신 윤애자 님은 어머니와 의붓아버지 곁을 떠나 각지를 전전하다가, 1970년대 무렵 호적마저 없어진 상태로 광주에 들어와 고물 장사를 시작했다. 전북 익산 출신 이순덕 님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다음이었고, 광주 남성과 재혼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광주에서 살았다. 전북 고창 출신 최선순 님은 일본군‘위안부’로 생활하던 중 정신이상이 되었는데, 해방 이후 광주 출신이었던 다른 ‘위안부’ 언니가 최선순 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서 1940년대 후반 한동안 광주에서 살았다.

넷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신고·등록하거나 자기 증언을 남기지 않은 또 다른 광주 출신 피해자도 일부 확인된다. 최선순 님은 정신이상 때문에 위안소 시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해서 최선순 님이 증언한 일본군‘위안부’ 생활은 대부분 광주 출신 언니의 기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를 광주 출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씨의 증언으로 바꾸어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순녀 님은 광주에서 함께 동원된 8명 중 ‘광주 아이’가 있었고, 해방 후 귀국하기 전 머물렀던 중국인의 집에 함께 살던 5명 중에 ‘광주 여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광주 아이’와 ‘광주 여자’가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중국 상하이에 1명 이상의 광주 출신 여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이러한 이름 없는 피해자 자료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동원 자료

마지막 IV장에는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동원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수록하였다. 이들 동원 자료는 피해자 동원 당시의 광주지역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다. 1~4절에 수록된 자료는 모두 각각 유형을 달리하므로 아래에서는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일본군‘위안부’ 동원 유언비어 판결문

1절에는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및 박정애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III-전시체제기 유언비어 통제 관계』 자료집(2021, 동북아역사재단)에 수록된 유언비어 관련 판결문을 수록하였다. ‘처녀 또는 과부를 공출한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체포·처벌받은 사람의 본적 또는 주소가 광주이거나, ‘유언비어’가 유포된 장소가 광주인 경우이다.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일본어 판결문(원문)은 모두 박정애 편 자료집에 번역·수록되어 있으나, 이 자료집은 원문에서 주소의 번지, 이름의 한자 등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였고 오역도 없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원문을 ①번 자료로 삼아 직접 번역·수록하고, 박정애 편 자료집 출처를 ②번 자료로 추가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적 및 주소의 상세 번짓수 일부를 삭제한 대신 ㉠을 채워 넣었다. 또 1944년 형공 제270호 자료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하여 박정애 편 자료집의 번역본을 그대로 수록하였다.

일제 말 젊은 여성을 근로정신대 및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이른바 ‘처녀 공출’에 관한 소문이 널리 유행하였다. III장의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생애 자료에서도, 김태선 님(가명)이 1944년 “요즈음 처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는 큰아

버지의 말을 듣고 일주일 간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동원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제는 이러한 소문을 군사에 관하여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육군형법의 '유언비어[造言飛語]' 죄목 등을 들어 처벌했지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상당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었다.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동원 유언비어 판결문은 1938~1944년 사이 7건이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처녀 공출' 관련 소문을 유포하다 처벌된 이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다. 처녀나 과부를 공출하여 전쟁터로 보낸다는 소문을 과부, 행상, 날품팔이 여성들이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처럼 기반이 약한 여성들이 동원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더 강하게 느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와중에 여성들의 위기의식을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운 사례도 없지 않았다. 또 1944년 형공 제270호는 광주 학강정의 광남인사소개소에 찾아가 만주 헌병대 위안소에서 나온 '위안부' 모집자라고 사칭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인데, 인사소개소 주인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에서 광주에서도 인사소개소를 통한 '위안부' 동원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 일본군 위안소 자료

2절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 일본군 위안소 자료에는 2005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굴한 몇 가지 명부 자료를 수록하였다. 명부에 수록된 여성은 대부분 일본군'위안부'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명부의 원문은 역시 개인정보 문제로 입수하지 못했고, 국가 위원회 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광주지역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광주 출신 인물이 팔렘방 지역에서 일본군 위안소 운영 업자(관리인)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황금정에 위치해 있던 광주의 대표 요리점 춘목암 경영자의 아들 조경옥(창씨명 玉川永豐)이 그 사람이다. 조경옥은 광주부 동정에 본적을 두었다. 그런데 팔렘방 125명의 여성 명단 가운데 본적(주소)이 광주인 사람이 5명, 그중에서 본적(주소)이 황금정인 사람이 2명(함분○, 이금○), 동정인 사람이 2명(김복○, 김순○)이다. 이들 광주 출신 여성은 조경옥을 매개로 팔렘방 지역에 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 생활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두 여성부에 피해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그밖에 전남 출신 여성도 다수 확인되며, 전북 남원 출신 강옥○도 광주를 거쳐 팔렘방으로 동원되었다고 한다.

광주지역 고급 요리점 경영자 가족이 조선인 여성을 동원해 해외에서 일본군 위안소를 경영했다는 사실은 가슴아픈 일이다. 이는 대도시로서 유흥업, 인사소개업이 비교적 발달한 광주지역이 광주·전남지역 여성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였음을 가리킨다. 앞으로 조경옥 등 일본군'위안부' 동원·모집 업자 관련 자료도 수집·정리되어야 한다.

(3) 광주지역 여성 인신매매 관련 신문 기사

3절 광주지역 여성 인신매매 관련 신문 기사는 1930년대 후반 광주 및 기타 지역에서 여성을 납치·매매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건 관련 자료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광주에서 점원 생활을 하다가 빚 때문에 경성의 매춘업소에 팔려 갔다가 다시 중국의 일본군 위안소로 넘겨진 박차순 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납치 및 인신매매는 1930~40년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주요 경로 중 하나였다.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어딘가에서 일본군'위안부'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신문 기사는 모두 박정애 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II-제국 외 이송 유괴 사건 관계-』에서 인용하였다. 해당 자료집에는 이밖에도 관련 신문 기사가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를 인용할 수 없으므로, 그중에서 광주가 명기된 것 위주로 발췌하였다.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광주지역 여성 인신매매 사건에서 눈여겨 볼 것은 광주에 근거지를 둔 여성 동원업자들과 그들의 수법이다. 1936년 1월 체포된 신성조 일당은 경성에서 ‘성신사’라는 인사소개업을 운영하면서, 취업 사기, 문서 위조를 감행해 여성을 강제 동원한 다음 합법적인 인사소개업을 통해서 조선 각지 또는 만주 등 해외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겼다. 1939년 체포된 하윤명 부부 역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남쪽 지방에서 취업을 미끼로 여성을 동원한 다음, 문서 위조 등을 감행하고 인사소개업자를 통해서 각지의 업소에 팔아넘겼다. 일제는 이들 ‘범법자’를 검거하고 처벌하면서 법률의 수호자를 자처하였지만, 사실 이들의 수법은 일제가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가 일본군‘위안부’를 동원하기 위해 이러한 수법을 묵인하는 가운데 여성 인신매매가 확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처녀 공출’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 유언비어도 확산되었음은 물론이다.⁷⁾

(4) 버마 레도수용소 일본군‘위안부’ 포로 심문보고서

4절 버마 레도수용소 일본군‘위안부’ 포로 심문보고서는 미군이 동남아시아의 버마(미얀마) 미치나 지역을 함락한 후 1944년 8월 10일경 생포한 조선인 ‘위안부’ 20명 등을 심문한 내용을 정리한 조사보고서이다. 심문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동원 과정에서부터 위안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부록에 수록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의 명단에 광주 출신 1명이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인용 자료 중에는 이 여성의 이름을 삭제한 경우도 있고 그대로 노출한 경우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서 역시 이름을 일부 삭제하고 ㉠을 대신 채워 넣었다. 버마 랑군에 동원되었다가 영국군의 포로수용소에 수용된 김태선 님(가명)도 영국군에게 위안소에서 도망해 온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들이 인적 사항을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앞으로 다른 연합군 점령 지역의 포로수용소 자료에서도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명단을 추가로 발굴하고, 그들의 피해 사실, 귀국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3. 연구 결과 활용 방안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광주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기획하는 데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발굴한 13명의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 행사를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제시기 광주·전남 지역은 전라남도라는 하나의 공동 생활권에 속했고, 광주는 대도시의 특성상 전남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많았다. 광주지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에도 광주 출신보다 인근 농촌지역에서 이주해 왔다가 광주에서 동원된 분들이 많다. 해방 이후에도 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광주, 전남, 전북 혹은 그 밖의 지역까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신 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어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한 지역에서만 기리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현재 광주·전남 지역에는 더 이상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

7) 하윤명 사건 피해자 가운데 광주 송정면 송정리 출신 피해자가 다수 포함된 것도 눈여겨 볼 만하다.

자가 계실 때는 각 지역에서 생존자를 중심으로 기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구심점이 사라진 것이다. 앞으로는 광주·전남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하거나, 피해자마다 관련된 지역이 상호 협력하여 기림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광주시민이 일본군'위안부'에 감정이입하고 기억할 수 있는 소재를 적극 활용한다. 광주·전남 방언으로 기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함께 소리내어 읽는 작업은 지역색을 토대로 광주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집단 동원된 전남방직 공장, 여성들이 실려 간 광주역, 남광주역 등 광주지역의 현존하는 공간을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일본군'위안부'로 동원되었으나 이름을 남기지 않은/못한 피해자까지 기억하는 방법인 동시에, 광주의 지역색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일본군'위안부' 운동에서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정대협-정의연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운동뿐 아니라 피해 증언자들이 살아온 삶터-지역의 서사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의 증언과 역사는 그들이 살아온 지역의 기억과 서사, 그리고 지역적 정체성과 연계하여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물론 광주에도 해당한다.

셋째,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성 산업 등 현재의 문제와 연계하여 현재성을 살린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제시기 광주지역은 대도시로서 교통·행정의 중심지이자 소비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그 속에서 발달한 성 산업과 인신매매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밑거름이 되었다. 심지어 광주지역 출신 요리점 경영자가 해외에서 위안소를 경영하며 광주·전남 여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하기도 했다. 불편하지만 이러한 사실 역시 활용하여, 현재의 광주시민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려야 하는 책임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현대 사회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활동을 통해서, 광주시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8) 배지연 외, 2023, 『일본군'위안부' 문옥주의 증언과 지역』, 한국문화사, 10쪽.